

WORLD VIEW

제4차 산업혁명, 종교개혁에서 톺아보다

SPECIAL COLUMN 제4차 산업혁명과 세계관 |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 알파고에 대해 묻기

2016

JUNE

06

COVER STORY

여성, 그대는

김세윤 박사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관계개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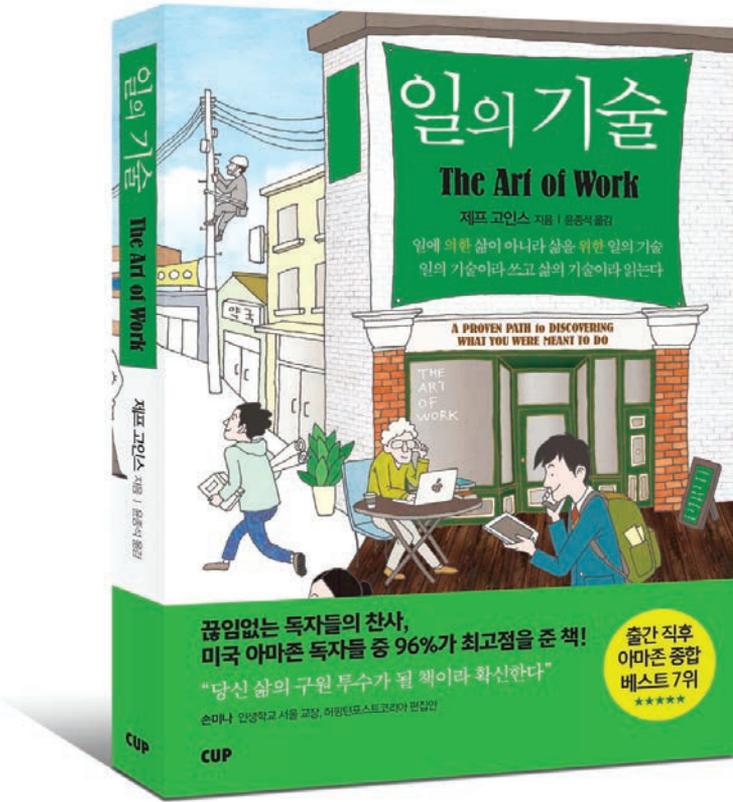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동관19층

Telephone 02-2183-2700

Fax 02-2183-2790

www.ins-lab.co.kr

m.ins-lab.co.kr



소명에 대한 책 중 가장 통찰력 있는 책이다.
마치 구약의 에스더서를 읽는 느낌이었다.
신학적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소명이라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이효재 목사, 일터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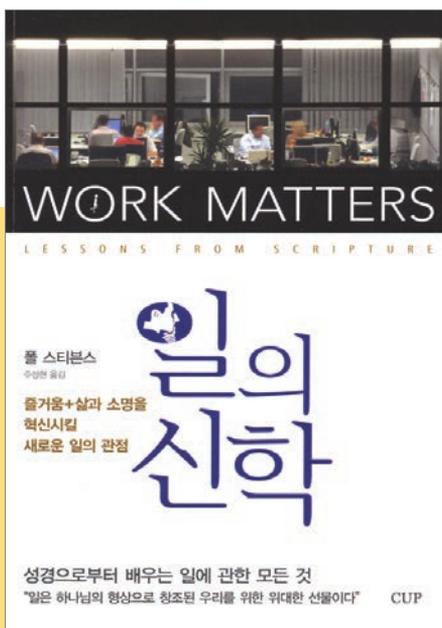
제프 고인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13,800원

- ★★ 출간 직후 아마존 종합 베스트 7위
- ★★ 김경집, 손미나, 크리스 조, 김건주, 송인수, 이효재 강력 추천!

끊임없는 독자들의 찬사, 미국 아마존 독자들 중 96%가 최고점을 준 책!

“당신 삶의 구원투수가 될 책이라 확신한다”

손미나 인생학교서울 교장,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인



폴 스티븐스,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필생의 역작
성경의 일터 사역자들을 만나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12,000원



4차 산업혁명, 경계하며 지켜보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구텐베르크(Gutenberg)의 인쇄기가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면죄부의 오류를 지적한 루터의 95개 조항은 당시에 막 개발된 인쇄술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그것은 천주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개혁의 추진력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도 인쇄술이 없었더라면 많이 제작되고 빨리 확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쇄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인쇄술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물론 단순히 그 때문에 개혁교회가 새로운 기술에 호의적이었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모든 지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던 가톨릭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 과학과 과학기술을 포함한 모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

의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은 종교개혁 덕으로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Beruf)이란 루터의 주장과 노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칼뱅의 가르침, 그리고 칼뱅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허용한 것은 상업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거기다가 칼뱅은 절제를 강조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제네바 시에서 보석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보석공들이 시계 제작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어 오늘날 스위스 시계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어쨌든 종교개혁은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가 그 특징이라 한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 2차는 전기 발명, 3차는 컴퓨터 발명으로 일어났는데, 4차는 인공지능 개발로 가능해졌다 한다. 모두 새로 개발

된 기술 때문에 산업의 형태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게일런(A. Gehlen)은 원시 사회의 마술(magic)은 오늘의 과학기술(technology)에 해당된다고 했다. 마술이란 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고, 주문을 읊고, 노래를 부르는 등 인위적인 수단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압도하는 자연 혹은 초자연적 힘을 제어하고 나아가 그 힘을 인간의 삶에 유익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였다.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빌고, 곡식 수확이 늘어나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기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힘을 제어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마술이든 과학기술이든 모든 기술은 “힘”을 통제하고 얻기 위한 수단이다.

짐승과 달리 사람은 자연에 대처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제조하는 인간”(homo faber)이다. 요즘은 짐승들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작은 새가 뾰족한 돌로 타조알을 깨기도 하고 원숭이가 막대기를 이용하여 바나나를 따기도 한다. 그러나 도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자체를 제조하는 기술은 짐승에게는 없고 옛날 사람에게도 없었다. 풍차, 돛단배, 물레방아도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이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자연에 주어진 그대로이지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데 증기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증기, 전동기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는 자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지능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 생겨나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액튼의 지적대로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거기에는 과학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커즈웨일(R. Kurzweil)은 2014년에는 기술이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컴퓨터 자체가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개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계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 것이다. 개인의 모든 지능을 데이터로 만들어 컴퓨터에 올림으로 육체가 없는 지능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서 기술을 통한 영생을 꿈꾸기도 한다.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나 컴퓨터학 권위자인 젤런터(David Gelemter) 예일대 교수는 그건 말도 안 된다(nonsense)고 해서 좀 위료가 된다.

1차 산업혁명부터는 과학기술이 과거처럼 주로 자연의 변덕을 극복하고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만약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학기술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의약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기술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돈이 모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액틴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을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것은 칼뱅의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와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개신교의 핵심교리이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 확실한 사실로 증명되었다. 거기에는 과학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은 엄청난 물리적 힘을 인간에게 안겨 주었고 그 힘은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죽을 죄를 짓지 않은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고 무수한 사람에게 잔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핵폭탄 하나만큼 많은 생명을 앗아간 자연 재난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마냥 좋아하고 축하할 수 없다. 1차 산업혁명 때의 러다이트(Luddite) 운동처럼 새로운 발전을 모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심각하게 경계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기술의 힘은 과거 어떤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이뤄진다”(If anything can, it will)는 속담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다.

특히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능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능으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만큼 강해졌다면, 그 지능조차 보조하고 심지어 대체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은 실로 가공할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무서운 힘이 반드시 건설적이고 결코 파괴적이지 않게 사용될 것임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자동화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4차(四次)가 사차(死次)가 될 수도 있다.

종교개혁이 이런 발전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면 그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개신교인들은 그 발전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발전이라 해서 마냥 축하하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열매를 즐기는데 급급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발전이 꼭 필요한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따져 봐야 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경계의 눈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잘못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위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나동훈	독서진흥간행물 <Thanks Book> 발간인,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졸업, 미술학 박사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나동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웅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JUNE · 2016



COVER STORY

커버스토리
여성, 그대는 | 김세운 08

SPECIAL

대표주간
4차 산업혁명, 경계하며 지켜보자 | 손봉호 02
기획칼럼
제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세계관 | 박문식 16
기획칼럼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 권오병 21
기획칼럼
알파고에 대해 묻기 | 손화철 26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31

COLUMN

메디컬칼럼 Cure & Care
사람과 사람 | 최현일 34
문고 답하다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 김현수 37



김세운 박사

WORLD VIEW

2016년 6월호 | WORLDVIEW | 통권 192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 VIEW



CONTENTS

그뎨 그랬지	
흘러간 노래처럼	30
루터의 도시를 가다#4	
로마 추태화	42

CULTURE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너는 특별하지 않아	46
유머	
교황이 운전기사 손봉호	56

BOOK REVIEW

서평	
기독교교육과영성 강영택	48

NEWS

사무국 소식	54
6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55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인목을 제시합니다.

사진 신효영 | 교정 김선경 | 디자인·인쇄 디자인집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
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한강르네상스빌 A동)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이메일 m.worldview.or.kr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
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여성, 그대는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인 김세운 박사가 방한하였다.

본 글은 지난 4월, 두란노에서 주관한 북토크 〈김세운에게 듣다, 성경적 남녀관계와 여성 리더십〉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구약, 예수님의 시대, 사도 바울의 문화 속 여성을 살펴보았다.

사진제공 | 두란노

여성, 그대를 구약, 그리고 창조세계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의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구약에서 여성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인구조사 시 계수되지 않으며, 남성의 재산목록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후 결과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성도 온 우주의 절대적인 형상이신 여호와와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진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만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공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짝, 파트너로 남녀가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돕

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에서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출애굽, 광야, 심지어 신약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왜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왜 남자들의 재산목록으로 귀속된 존재로 그려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등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곳곳에서, 구약 속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 할까요?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기도 하고 일부다처제로 여성의 지위가 비하되고 종속적으로 변했죠. 이 왜곡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십니다.

여성, 그대를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말한다

그 왜곡이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구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신명기법에 근거하여 남편은 언제나 여성을 이혼증서를 써 주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혼당한' 여성들은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막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사회 정황은 엄격하게 남녀를 구분하고 여자를 종속시켰습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새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이 남녀 모두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나, 성령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임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어 있던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에도 여성은 여전히 계수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당시의 배경을 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혁명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 금지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셨고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등 여성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두 제자 속에 여성은 없는가에 대해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고불변의 위치라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시다만, 신학은 문

화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진리로 믿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문화적으로 양보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열두 제자를 세우셨지요. 열둘(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자,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모은다고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통치 하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나아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고 충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며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가장 크게 저항한 세력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새 창조의 열 두 지파 중 하나를 여성으로 세운다면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심한 저항이 예상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선포하고자 당시 관습대로 열두 남자를 새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질서 속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새 질서를 소개하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남자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첫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그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여자를 증언자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사역 기간까지는 타락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남자들을 열두 제자로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부활의 순간에는 여성을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에도 증언할 능력이 없던 여성이 신명기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에 자신감이 있었던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당시 문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고,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조차 마리아를 통해 부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성들은 활발히 복음을 증거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의 증언에서 더욱 자세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그대를 바울이 말하다

바울 서신 중 여성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1, 14장의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 하라”일 겁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당시 머리의 수건은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복음에 비춰 판단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 유대교 회당의 예배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교 회당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각각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모습을 보면, 유대 회당의 예배와 달리 파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은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임재하셨고 예언의 능력과 각양각색의 은사도 동등하게 주셨죠. 당대에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 여자가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리스도인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교회 밖에 알려지면서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혼음하고 자녀를 먹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들끓는 비난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라고 독려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기 위해 다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즉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권고한 것이지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외부의 교회 비판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손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살던 시대 상황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도록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남녀 동등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무오'는 성경 단어의 무오가 아닌 성경 가르침의 무오를 의미합니다. 토씨 하나도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문자주의식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성도의 삶에 정확무오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바울은 여성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쓰며 앞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고전 14장, 딤후전 2

장 두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성, 그대를 오늘날 말하다

역사상 탁월한 여성 리더십이 발휘된 경우는 드뭅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영국의 총리인 마가렛 대처, 벤구리온에 이어 이스라엘의 수상이 된 골다 메이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던 사회는 그 역사가 짧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정의마저 명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성의 판단에 의해 리더십이 정의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단적인 예로, 남성은 단숨에 힘을 폭발하는 데는 강하지만, 동일한 힘을 지속적으로 길게 사용하는 것은 여성이 강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강하고 약한 존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리더십 또한 다르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남성의 리더십과 여성의 리더십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와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다릅니다. 남성의 리더십이 강한 카리스마라면, 여성의 리더십은 다른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남성의 강한 리더십이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성의 섬김과 설득, 인내심으로 그 힘을 지속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다를 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LA의 어느 교회가 남자들만 장로로 세우다가 처음으로 여자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남자 장로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장로들만 있을 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여자 장로들이 생기니 싸울 일이 없어졌다며 진작 세울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상황과 환경의 화

합을 도모하는 데에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과 남성의 리더십은 이렇듯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남성우월주의, 남성 주도적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도, 그런 훈련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지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여성들, 여성의 리더십을 서신서 일부에 국한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폭넓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살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원칙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비춰 그 뜻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세윤

서울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케임브리지의 틴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연구하였으며, 맨체스터대학교에서 PH.D.를 받았다. 그 뒤 누차 튀빙겐대학교에서 HUMBOLDT 연구원으로 연구하였고, 싱가포르와 미국 칼빈신학교, 고든코넬신학교, 플러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 및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 부학장직을 역임한 후, 지금은 신약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저서로 『바울 복음의 기원』, 『바울 신학과 새 관점』, 『그리스도와 가이사』,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와 바울』, 『주기도문 강해』, 『요한복음 강해』, 『빌립보서 강해』, 『고린도전서 강해』, 『칭의와 성화』 등이 있다.

※ 본 내용은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2016, 두란노)을 통해 더 깊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읍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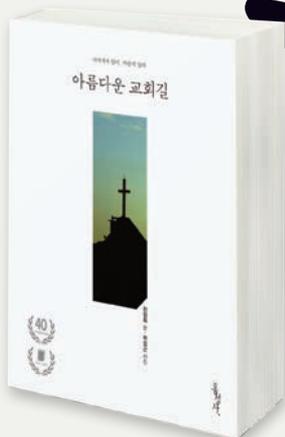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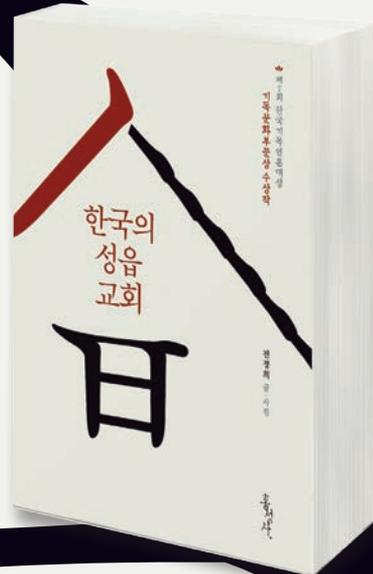
❖ 제7회 한국기독언론대상(기독문화부문) 수상!

“무너진 성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다”

한국근현대사의 무게를 짊어진, 토박이 신앙인들의 육성이 담긴 증언집

전정희 글·사진 | A5변형 | 336면 | 본문컬러

국민일보 문화부장, 인터넷뉴스부장, 종교기획부장, 종교부장을 거쳤다. 현재는 종교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읍 교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민일보>에 연재한 기획물로 한국기독언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기독언론대상(기독문화부문, 제7회)을 수상했다. 2010년 '그림으로 보는 인문지리학 공간+너머'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름다운
교회길

전정희 글 | 광경근 사진 | A5변형
312면 | 본문컬러 | 16,000원

WORLDVIEW

SPECIAL

기술이 삶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 희망적인 핑크빛 메시지만은 아닌 듯합니다.

청년 일자리도 없는 판국에 기계가 중산층의 일자리마저 위협한다네요.
직업의 알고리즘 분석이 가능하다면 직업의 현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고요.

기술진화가 일자리를 대폭 줄인 지금, 로봇의 혁명이 우리 지식의 패러다임을, 지식을 바꿉니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몫은 인간의 일일 줄 알았는데 지식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컴퓨터가 더 잘한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고도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섬뜩합니다.

물론 지금의 기술은, 우리를 편하게 해 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지만 그 기술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사고가 잠식된다면,

생각만으로도 꿈직합니다.

이미 되어 가는 일에 별다르게 살아야 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판단과 결정, 새로운 시간과 상용이 보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세계관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즉 다보스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리면서 대중적으로 인식되었다. 선택된 권력자들에게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대회에서는 창립자 겸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한 과학

기술로 열리게 될 '디지털 기기와 물리적 환경의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있었던 알파고-이세돌 사건이 4차 산업혁명 신드롬에 불을 붙이는 양상으로 변지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율 자동차(자율 로봇),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되었고, 한국의 저널리즘들은 이들에 대해 경쟁

적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다보스포럼의 마케팅은 전 세계에 ‘고용 절벽’, ‘전문가 서비스의 종말’과 같은 충격적인 위기를 전파시켰고, 선진국들에 미래 기술에 투자하여 기회를 선점하고자 하는 동력을 주었다는 차원에서 대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1차, 2차 산업혁명이 고용을 창출하는 혁명이었다면, 반면에 3차,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고용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순을 드러내면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제는 경쟁적으로 기술 발전을 부추기게 되어 모순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면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진면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산업혁명 개관

어원적으로 제1차 산업혁명은 프랑스 대혁명(1789-1793)을 연상시킨다. 1800년경부터 유럽에서 통용되던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1881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산업혁명은 산업의 발전이 경제 및 시민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말이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일련의 기계들의 발명과 응용에 의해 촉발되었다. 증기 동력의 방직기계(textiles)들로 목화씨를 빼고, 실을 만들고, 직조하면서 생산성은 50배 이상 높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복이 풍성해졌다. 공장을 돌리는 증기동력뿐 아니라 증기기관(steam engine)과 증기 자동차들이 물자의 수송과 사람의 여행을 먼 곳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급증하는 여행과 스포드에 대한 욕망은 포장 도로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발로 충족되었다. 숯 대신 코크스(coke)를 사용하는 제철 및 제련법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계수

요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 무렵 기계들은 미국 대륙으로 퍼졌고, 곧 자동차 문화가 활짝 피어났으며, 예술가들은 기계문명의 아이콘으로서 근대와 미국주의(Americanism)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봉건주의 농업사회로 남아 유지되고 있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거의 백 년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제2차 산업혁명의 구분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석유와 전기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과학기술이 적용되어 생산성과 유용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보다는 미국과 독일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영화, 라디오, 축음기가 보급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중문화가 산업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13년 완성된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식 대량생산 기술일 것이다. 표준화되고 분업화된 컨베이어식 공장에서는 연간 Model T 생산대수가 1909년 만8천 대에서 1920년 백만 대로 약 50배 증가했다. 차의 가격은 850불에서 3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헨리 포드는 유럽과 소비에트 전체에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 소비에트는 포드식 공장을 모스크바에 건설하여 트럭과 탱크를 만들었으며 히틀러는 헨리 포드를 존경하여 집무실 벽에 그의 사진을 걸어 놓고 자서전에 ‘헨리 포드는 나의 영감과 같다’고 썼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의 국민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경제를 일으켰다. 1932년에 출간된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의 시대적 배경은 AF 632년인데, AF(After Ford)는 포드의 기원을 의미하므로 1913년을 시작으로 한다면 서기 2540년쯤 되는 셈이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혁명은 사회적으로 근대화와 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융합은 가속화되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중이다.

게 진행되었다. 산업사회와 근대사회는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달로 가능할 수 있었다. 케플러의 행성의 법칙(1619)에서부터 뉴턴의 프린키피아(1687)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법칙의 발견은 후크(Hooke), 보일(Boyle), 베르누이(Bernoulli), 오일러(Euler) 등에 의해 실용적인 수준까지 발전되었고, 기계들의 발명과 와트(Watt)의 증기기관의 발명(1769)으로 이어졌다. 이들 과학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개혁의 신념하에 과학적 원리들을 발견하였다. 케플러는 “합당한 실험이 없이는 나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앙적으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거기에만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였다. 유럽의 개혁은 과학 혁명으로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진행되었고 산업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부르주아(중산층)를 형성하며 봉건사회를 해체시키고 민주시민사회를 이룩함으로써 근대가 열리게 되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소 모호하다. 1980년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에서 첫 번째 물결을 농업혁명으로, 두 번째 물결을 산업혁명으로, 세 번째 물결은 정보혁명으로 표현했다.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2011년 그의 책 『제3차 산업혁명』에서 ‘재생 에너지’와 ‘인터넷 기술의 융합’으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그는 화석 에너지에 의한 2차 산업혁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과 생명의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형태로의 중앙 집중형보다는 분산 공유형 산업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뿐인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경제의 실천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3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고 딱 5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것이다.

인간의 생활 양상과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으로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다. 농업혁명은 경작에 의한 식량 조달로 정주형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와 국가를 형성시켰다. 산업혁명은 초기에는 노동 착취, 도시 빈민화,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켰지만 (이로 인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짐) 시민 민주주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극복되어 봉건적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인류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고용이 증대되어 인구증가를 지탱해 주었다. 정보혁명은 80년대 디지털화와 90년대 인터넷, 그리고 2천년대 스마트융합, 2010년대 지능정보 거대융합을 거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었고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기계와 컴퓨터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망은 즉각적으로 충족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그리고 사물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공학으

로 실물경제는 금융경제와 통합되어 파생상품과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지금은 단지 정보혁명 또는 3차 산업혁명의 확장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전략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융합은 가속화되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중이다. 아이폰의 출현은 그것에 융합되는 앱 만큼 소기업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 소기업들은 몇 개의 협력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NBIC(Nano-Bio-Information-Cognitive Science)라 불리는 신기술들은 인간마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무신론 과학주의는 개조 인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간의 행복이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처럼 조장되고 있다. 자연으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세세한 생태적 감각이 아니라 가상화되고 증강된 말초적 쾌감을 자극해 주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탐욕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허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미래에 인간의 고통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은 사라지고 태어는 인공 부화소에서 만들어지는데 발육 조절과 전기충격 같은 세뇌를 통해 알파 계급부터 입실론 계급까지 직업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없다. 결혼과 가정은 아만적인 것이며 섹스는 만인이 즐길 수 있다. 더 나은 쾌락을 위해 누구나 소마라는 약물을 사용하는 데 행복감을 주며 노화도 막아 주어 항상 30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올더스 허슬리는 이 미래를 2540년쯤으로 설정하였는데, 우리는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두렵다.

산업화시대 도시인들의 일터는 기업이다. 그 일터는



농부의 토지와도 같은 것이다. 농부에게 토지가 없어진다면 삶은 유지될 수 없다. 지금 산업혁명을 통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독일은 이러한 정보화 혁명의 물결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4.0'이라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지멘스와 같은 공장자동화 일류기업과 일류 자동차 회사들이 지난 10여 년간 보여 왔듯이 그들의 정보화 융합은 기술 보호주의이다. 스마트라는 명목하에 코드화된 기계들은 제조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독일의 '산업 4.0'의 구체적 전략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목표는 필경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 하는 쪽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나 난민 같은 문제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핵에

너지 제로화를 국가비전의 하나로 선포하고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근로인구 1명이 비근로인구(미성년과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측은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의 수준으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보다 절박하게 대안적 사고에 의한 국가전략을 필요로 한다.

1917년 이광수의 『무정』에서 이기적이고 남성 권위적이며 무정했던 형식은 자신이 거둬나가는 대반전의 사건을 경험한다. 열차를 타고 가던 중 큰 홍수를 만나 철로가 끊기는 바람에 삼랑진에서 한나절 동안 머무르게 된다. 형식은 그때까지 이기적인 사랑의 줄타기를 하던 두 여인 영채와 선형이 가없는 수재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여는 것을 보면서 ‘유레카’를 외친다. “과학교육 입국만이 이 민족이 나갈 길이로다.” 형식은 처음에 영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을 생각하여 더 좋을 것 같은 선형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 길에 나서는 열차에서 내려 과학기술 입국을 외친다. 과연 오늘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정』에서 그러했듯이 우리 민족에게 서린 뼈아픈 가난과 압제의 고통이 오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향후 미래를 볼 때, 오늘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구 감소와 고용 절벽, 기후 변화와 남북분단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인 무한 경쟁과 급속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창의적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적 성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만들어 내는 즉석 행복(fast happiness)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서 무한하고 잠재적인 인간성 본위의 행복 추구를

회복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이버-물리 융합시스템은 탐욕으로 오염된 인간이 아니라 창조적 도덕성을 지닌 인간의 권위와 통제하에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서 인간성은 지켜져야 하며, 개조되고 증강된 체험으로 인하여 감각과 지각이 왜곡되어 인간의 자유와 상상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개혁된 기독교는 이 시대에 인간이 당면한 고통을 직시해야만 한다.



글 | 박문식

한남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서 설계분야를, 교양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교양융복합대학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우중공업 항공우주연구소 및 보잉그룹에서 항공기 설계개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남대학교의 괴테개인전도회(신우회) 회장으로 섬겼으며 현재 한남대학교에서 국제학생부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이자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알파고 이벤트

체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둑이라는 좀 더 복잡한 게임에서도 기계가 사람을 이겼다는 사실이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흥행으로 유명해진 알파고와 구글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이에 많은 지식인파 기업들이 편승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3월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관점을 세계로 돌리면 알파고는 별것 아니었다. 구글 트렌드를 보아도 알파고 검색은 3월에 반짝했다가 4월에는 3월 검색량 지수의 8% 수준으로 급전직하하였다. 그나마 알파고에 대해 언급한 지역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정도이며 일본은 한국의 8%만 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

은 미국 서부나 호주 일부 지역 외에는 아예 관심 밖이었다.

그러면 이 별나고도 별것 아닌 이벤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기술을 이용한 또 다른 이벤트가 우리 앞에 펼쳐져도 놀라기 전에 본질을 보자는 것이다. 이번 대결의 본질은 직관은 뛰어나나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인간과 직관은 없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정보처리가 가능한 기계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매우 제한된 대국 시간으로 정보처리 능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게 짜인 게임 속에서 기계가 '당연히' 이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향후 다른 기술 기반의 이벤트가 펼쳐져도 놀랄 만한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비성경적 상상'이 알파고 이벤트와 같은 현상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낳고, 악한 영이 그것을 체계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세속화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만들어진 천동설 때문에 수백 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과학의 대척점으로 오해하여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독교인의 견해

다음(오른쪽)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기독교 매체에 실린 기독교인의 견해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사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 듯한 인공지능이 당황스럽지만 알고 보면 별것 아니니 이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로 요약할 수 있다. 모두 올바른 지적이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별것 아니기도 할까?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병존할 때에는 대체로 다른 결정적 원인이 있어서이다. 바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이다.

알파고에 대한 기독교인의 견해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막연한 두려움 대신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주체적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한다.

기독신문 사설(2016년 3월 14일자)

알파고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마10:28) 하며, 과학을 경외하기보다는 과학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언젠가 바둑에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 최고 기사를 물리칠 날이 온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란 여전히 인공지능을 만든 뛰어난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이는 '결정론적 기계'일 뿐인 것이다.

조덕영 박사(크리스천투데이 2016년 3월 9일)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결론을 빠르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일 뿐이지, 사람의 지각 능력을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다. 영혼 대 물질의 싸움이 아니다.

하주현 교수(한국창조과학회)

인공지능 알파고는 사람의 지각뿐만 아니라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직관과 창의성의 영역에서 사람을 능가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죄인이다.

심규환 목사(서울제일교회)

'알파고'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 보인다.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그것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파고'를 향한 관심 그 이상 하나님을 향하길 기도한다.

안재민 목사(기독교한국신문)

'인공지능의 바벨탑'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효준 장로(크리스천포털)

기독교 신앙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 과학문명과 윤리, 과학과 종교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

국민일보 기사(2016년 3월14일자)

감(感)과 수(數), 수(數)와 영감(靈感)

감(感)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의사결정 과정을 지양하고 숫자로 객관성을 갖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은 수(數)로써 재주를 부리는 꽤 정교한 방법론이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근접함으로써 어쩌면 감(感)에만 의존하는 사람 정도는 넘어서는 중이다. 인공지능의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추론(reasoning)과 학습(learning)이다. 추론이란 주어진 사실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터득하는 과정이며, 학습은 주어진 사실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의 추론과 학습 능력이 뛰어날수록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 낼 수 있으며, 일부의 작업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추론 및 학습의 품질은 주어진 사실과 지식의 정확성과 풍부성에 대체로 비례한다. 과거에는 기계에 사실이나 지식을 주입하는 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들어 하드웨어의 성능도 좋아지고 빅데이터 기법도 정교해지면서 대량의 사실과 지식을 수집하고 정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인공지능을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짧은 시간 내에 추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 차차 해결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분산처리기술 및 발견적(heuristic) 기법을 활용하

인공지능의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추론과 학습이다.

추론이란 주어진 사실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터득하는 과정이며, 학습은 주어진 사실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면 극복할 수 있다.

분명 인공지능은 수를 서툴게 다루는 사람보다 스마트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은 수의 시대, 즉 숫자를 신뢰하는 시대에 매력적인 도구이며, 감의 시대에 사는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감에만 의존하면 주먹구구이지만 감이 영감(靈感)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영감 있는 의사결정은 숫자로 중무장한 인공지능의 그것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한계이다.

관건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알파고처럼 잡시나마 사람을 놀라게 할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예로부터 수(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외쳐 온 피타고라스류는 알파고에 열광하고 또한 알파고 효과가 사라지면 제2, 제3의 알

파고를 염원하고 소비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부나 권력을 취하려는 기술자들과 자본가들은 이를 조장하거나 편승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권력 취득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이벤트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세상, 즉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지언정 인공지능이 스스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로 보건대 문제는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에 사람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띄우거나 반대로 폄하하려는 두 가지 시도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지나치게 띄우는 것은 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를 취득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다를 바 없다. 신상 모형 제작자들이 경제적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데미의 본 모습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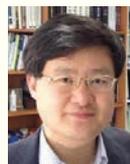


는 집단사고(group think)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경제 살리기 등의 후광을 입히면 자칫 집단사고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심해야 한다. 한편 폄하하는 것은 후에 인공지능의 또 다른 발전이 보일 경우 폄하하던 자들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이나 기관이 같이 훼손될 수 있다. 중세 천동설 지지자들이 코페르니쿠스를 폄하했다가 후에 지동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 것과 같다.

둘째, 기술이 경제 권력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한국의 경우 33%까지 육박하리라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인공지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여러 산업 분야에 장착될 고도의 인공지능은 분배의 정의에 심각한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걱정의 중심에는 자본가들만이 인공지능을 보유할 것이라는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소수의 경제력 집중에 이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한 크리스천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참 경건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이 밝은 다스림 아래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땅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으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사람의 직관이나 지혜의 영역까지 훑내 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명령의 유일한 미션 수행자인 인간은 인공지능에 통치권을 이양하고 반대급부로 어떤 풍요를 얻으려는 무절제를 말씀에 의지하여 멈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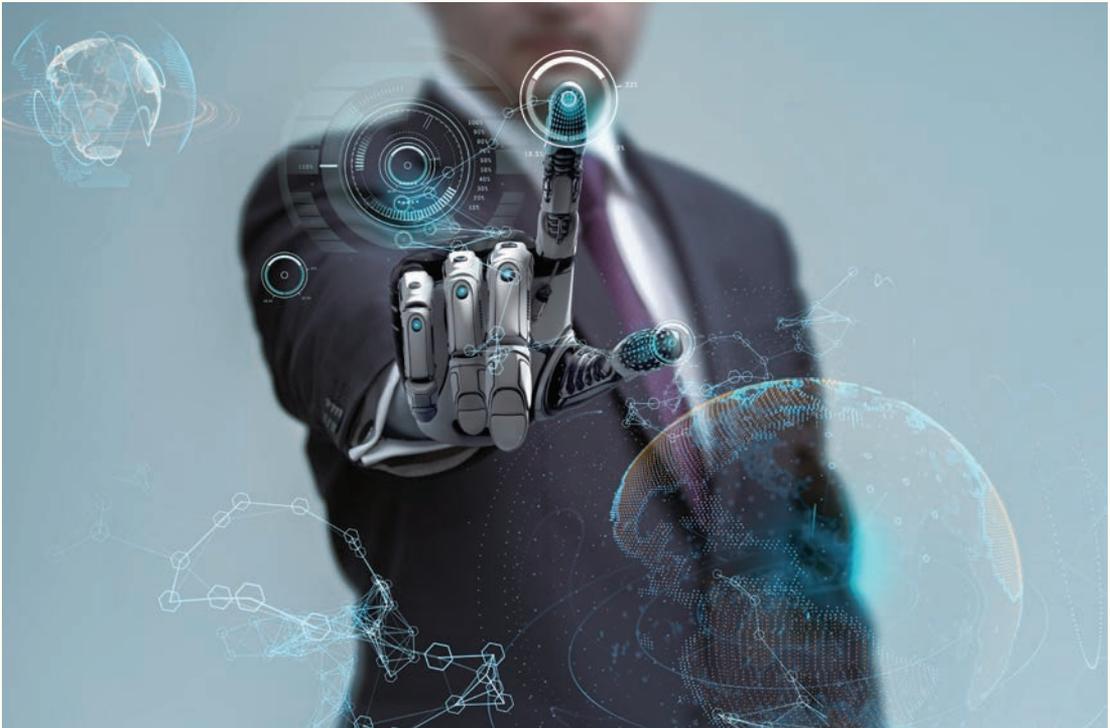
심판이 선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소통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인공지능으로 펼쳐질 것 같은(be likely to) 미래사회와 말씀에 입각하여 펼쳐야 할(ought to) 미래사회의 불일치에 대해 교회가 숙고하고 충고하여 인공지능 활용에 반영시켜야 한다.



글 | 권오병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사(BA)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에서 공학석사(MS) 및 박사(Ph.D.)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영정보시스템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분석 분야에 1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한동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한다. 그는 현재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다.

알파고에 대해 묻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파고도 대단했지만, 알파고에 대한 관심이 끓어올랐다 식는 속도도 놀라웠다. 이세돌과의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만나는 이마다 자신이 받은 충격을 토로하고, 신문마다 없어질 일자리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알파고-이세돌 대국보다 더 재미있고 파격적인 국내외 저열한 정치 뉴스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보다는 기술이 주는 충격과 놀라움에 내성이 생긴 탓일 수도 있다. 어차피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정신 없이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렉저력 맞추어 살게 된다고. 증기기관, 핵폭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다 굉장했고 그만큼의 두려움과 격변도 일으켰지만 모두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안착했다. 그러니 알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알파고는 다르다

알파고는 다르다. 다른 기술들도 사람에게만 고유하다고 생각했던 여러가지 능력들을 정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파고는 '배움' 혹은 '학습'이라는 신비한 과정을 모방하는 데 성공했다.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했다가 다시 내어놓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복잡한 계산을 해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배움의 결과는 가르침을 넘어선다. 가르쳐 준 내용을 서로 연결하거나 삭제하고 재해석하여 전혀 새로운 내용을 생산해 낸다. 이세돌 9단도 처음에 자신에게 바둑을 가르쳐 준 스승을 어느 시점엔가 이겼을 것이다. 알파고는 이렇게 신비한 배움을 모방했을 뿐 아니라, 그 배움의 속도와 양의 측면에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경험을 축적, 활용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공간이 크다.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의사의 진단, 변호사의 판례 조사, 시장 분석, 날씨 예보 같은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하리라는 예상이 많고, 이미 실현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알파고는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알파고의 한 수가 좋은 수였는지는 결과로만 알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면 그 판단을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공지능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은 막강한 물리력을 발휘하는 기계나 빠른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도구'의 개념을 넘어선다. 판단의 이유와 과정, 내용의 적절성을 사후에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인공지능 알파 의사와 인간 의사가 서로 다르게 내릴 경우, 사람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알파 의사의 판단을 믿을 것이다. 심지어 그 환자 중 몇 명이 사망하더라도 여전

히 인간 의사보다는 오진율이 낮을 것이므로 알파의 사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을 것이다. 활용의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권력과 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심도 없으니,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제정책이나 밝혀진 증거로 심판하는 형사 재판도 맡길 수 있을지 모른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나 정치가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이렇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많이 회자되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린다. 이는 그 자체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기술의 발전은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영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시대에 핵심기술에 대해 정확한 물음을 던질 시점을 놓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인간, 그리고 인간 세상

먼저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우려나, 그 우려에 반박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흉내 낼 수 없는 창의력 같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 있음을 애써 강조하는 논의를 살펴보자. 이것들은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묻는 철학의 흥미로운 물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알파고로 대표되는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알파고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규칙이 명확하고 논리적인 게임의 한계 내에서 능력을 발휘할 뿐 인간의 감정, 상상력과 창의력, 이타심, 탐욕, 심술 같은 것을 모방하려면 한참 멀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을 구현하려 노력할 실질적인 이유도 별로 없다.

알파고를 만든 것도 인간이고, 이세돌이 대국에 연거푸 지면서도 보여 준 인간의 품격은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의 일부일 뿐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하사비스와 그의 동료들이고, 이세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절대 알파고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세돌의 1승은 이세돌의 승리일 뿐인데 반해 이세돌의 4패는 인간 모두의 패배를 대표한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품격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참 많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인간다움보다는 알파고가 보여 주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배움'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우려할 만하다. 인공지능의 능력 자체보다 그 능력이 사용될 오늘 우리 세계의 악한 권력관계가 문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인공지능은 권력과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다수인 약자들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것을 상상하고 걱정하기보다, 강한 소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술은 날씨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대량 실업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예상과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산업혁명 때부터 그러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낙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신기술로 인한 전환의 기간은 길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또 근대 이후의 신기술들이 물리적인 노동이나 단순작업으로부터 숙련노동까지 순차적으로 대체한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은 최고 전문가들의 직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충격도 크다. 인공지능은 높은 성과를 낼 뿐 아니라 불평도 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으며 욕심도, 사심도 없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능 좋은 인

공지능을 두고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앞 다투어 뛰어드는 것은 우리 학생이라도 살려 보자는 발버둥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부질없다. 하사비스와 잡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구글의 고용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예측과 반응만큼 심각한 문제는 이 예측과 반응이 깔고 있는 전제, 즉 기술의 발전을 통제 불가능한 날씨 같은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비가 오거나 별이 따가우리라는 예보에 우산이나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은 날씨와 달리 인간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수동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측될 때에는 그 발전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와 그의 팀의 활동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어되고 조종될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세상의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공지능이 잘 사용되게 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관계 내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러한 시도는 한 사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국가 간의 공조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침해의 의견 충돌이 있다면 기술개발을 유보하는 것에 합의할 수도 있다.

기술발전이 무조건적인 선이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통제는 이미 이루어졌고 첨단기술일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핵폭탄과 핵발전소 등 핵 관련 기술 활동은 국제적으로 제어, 조정된다. 자동차 기술은 속도를 버리고 환경과 안전을 택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간접적으로라도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사소통의 상대보다는 정밀한 판단을 수행하는 기능적 보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인공지능 기술의 독점과 소수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물론 이에 포함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과 기술의 문제

인공지능은 핵공학, 정보소통기술, 생명공학, 뇌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빅데이터 기술에 이어 기술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들 최신 기술들은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들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인간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진다. 이들의 도전은 기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입장에도 가차 없이 적용된다. 최첨단 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죄로 왜곡되었으므로 구속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도식은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과 같은 개별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혜택도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고민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다. 개발자, 사용자,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첨단 기술의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적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사용이나 안락사 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기술을 제외한 주요 기술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취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현대 기술발전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힘을 쏟은 역사도 알지 못한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기술들이 성경적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독교세계관 운동 역시 기술발전의 뿌리인 근대정신에 사로잡힌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침내 이

성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은 바로 그 논의를 시작할 좋은 출발점이다.

현대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고에 남긴 흔적은 짙다. 온갖 전쟁무기와 원자력 발전의 위험, 환경오염과 굶어 죽는 사람들, 인터넷 중독과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역시 혜택만을 주며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파고 열풍은 인공지능이 남길 흔적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바로 그 물음이 사람과 인공지능을 가른다.



글 | 손화철

벨기에 루벤 대학교에서 기술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학부 철학 담당 교수이다.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토플러와 엘릴』(김영사)을 썼고,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CIR)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창비)을 비롯한 여러 책을 함께 썼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2016. 5. 21일자 발행)



흘러간 노래처럼

97년이나 98년,
용산 사무국이었던 것 같네요.

기독교학문연구소
3대 회장이었던 윤완철 교수님,
4대 회장이었던 황호찬 교수님,
5대 회장이었던 박창균 교수님,
최장기간 회장직을 맡았던 김승욱 교수님,
그리고 저(조무성 교수)네요.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4-19

책임 있는 과학기술

저자 | 에그버트 슈만 | 역자 | 양성일 | CUP | 정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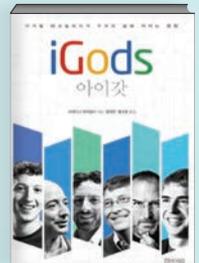
저자는 책임 있는 과학기술이란 올바른 관계, 정의, 배려, 조화 그리고 개방된 의사 전달과 같은 규범 원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 지상주의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과학과 기술의 관계 등을 역사적인 부분까지 분석해 담고 있으며, 기술과 경제 관계 및 국가관계, 그리고 선지자적 자제 부분까지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일부의 사람에게만 국한된 과학기술이 과연 온전히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류가 수행하는 과학 기술도 책임 있게 수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이갓(iGods)

저자 | 크레이크 뎃와일러 | 역자 황영현, 황규준 | 아바서원 | 정가 1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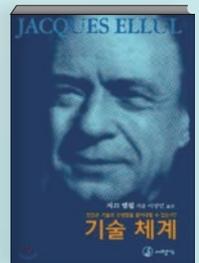
IT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과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 삶을 공유하고, 삶 또한 편리하게 단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에 압도당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관리하는 일에 지치기도 한다. 이 책은 지나친 정보의 범람 시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요한다. 이 책은 IT시대를 상징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중요한 IT기업들의 역사와 그들이 끼친 영향력에 관해 예언자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오늘날 소셜미디어 문화에 대해 젊은이, 부모, 교사, 목사 등이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유익한 물음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체계

저자 | 자크 엘뤼 역자 | 이상민 | 대장간 | 정가 24,000원 | 원제 Le Systeme Technicien

새로 등장하는 기술사회의 도래, 그리고 기술체계의 생태계로 몰입되는 인간에 대한 선지자적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여기서 기술은 단순한 기계, 도구 또는 컴퓨터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양식과 가치를 형성해 가는 기술담론을 말한다. 즉, 인간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진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경제인이 되게 하는 경제기술, 효율성이 지배하는 조직기술, 기술환경의 적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인간기술로 대변되는,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술체계가 인간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사회는 이러한 탈인간화를 해결한 능력을 상실하였다. 선지자는, 오직 혁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기독교뿐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세계관전공 기독교학 석사
M.A. in Christian Studies

기독교세계관전공 기독교학 디플로마
Diploma in Christian Studies

교육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VIEW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입니다.

VIEW

한국 기독교의 미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입학 안내 및 문의
www.view.edu
worldview@twu.ca

VIEW는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ACTS Seminaries의 기독교 세계관 석사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통역 또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VIEW Office, Forsmark Centre, Trinity Western University, 7600 Glover Rd. Langley, BC, Canada, V2Y 1Y1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사람과 사람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6)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너는 특별하지 않아

사람과 사람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영도 결국은 사람이 최종 경쟁력이라 하고, 하이 테크놀로지도 사람이 있어야 소용이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놀랍게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학의 분야에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다루었던 참회의 역사가 있다.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은 의학연구 중 가장 유명한 연구는 2차 대전 중 독일과 일본이 실시한 강제 인체실험이지만, 전쟁 후에 문명화된 사회에서 (밝혀진 연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연구(Tuskegee Syphilis Study)이다. 이 연구는 앨라배마주 터스키기 지역의 흑인 남성 399명을 대상으로 매독의 자연 경과를 조사하기 위한 관찰 연구였다. 연방정부 산하 공중의료서비스국(Public Health Service)의 주도하에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연구의 목적은 매독의 자연 경과와 함께 말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사들은 가난한 흑인들에게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매독 환자를 찾는 과정), 아픈 사람(매독 환자)은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사실은 아스피린과 철분제를 준 것이 전부였다) 식사까지 제공했다. 그들에게는 매독이란 진단 대신 '나쁜 피(Bad blood)를 가진 병'이라는 병명이 붙었고 치료라는 미명하에 뇌척수액을 빼내는 시술과 혈액 채취가 시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던 1943년, 매독에 특효약이라 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고 1951년에 매독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약제의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부가 해당 지역 의사들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연구 대상자가 된 흑인들이 병원에 올 경우 그냥 돌려보내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을 철석같이 믿고 몸을 맡긴 흑인들은 매독으로 죽어갔고 아내(성관계)와 자식(태아 때 모체에서 옮는 선천성 매독)까지 감염되는 비극을 맞이 하였다.

그러던 중 1972년 한 신문기자의 제보에 의하여 이 연구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 상황은 미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결국 1972년, 연구는 중단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지만 참여했던 의사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연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어 총 1천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1997년 5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의학연구를 위해 사람을 착취한 이 연구는, 참여하는 흑인들에게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고 마치 특별한 치료를 하는 듯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계획서조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구초기인 30년대 초반에는 매독 치료제

가 없었기에 질병의 경과만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40년대 초반에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에도 연구참여자들을 속이면서 치료제를 제공하지 않고 30여 년간 연구가 계속되었다는 점이 있다. 당시에 연구하던 의사들과 보건당국에게는 ‘사람’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흑인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4년 미국에서는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만들어져 임상연구의 조건이나 실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연구법에 의해 설립된 인간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1979년에 임상연구 윤리철학과 과학적 실행의 근간이 되는 벨몬트 리포트(Belmont report)라는 문서를 제정하여 모든 의학연구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연구원칙을 정하고 현재까지 그 원칙에 따라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학 역사 가운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윤리적 연구사례가 많이 있다. 모두 ‘사람’보다 다른 가치들이 상위에 서게 될 때 생겨난 비극들이다. 의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앞의 ‘사람’보다 외모가, 타고 온 차가, 사회적 지위가, 질병의 진단명만이 내 눈을 덮으면, 내 눈앞의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다. 사람보다 데이터를 더 소중히 여긴 터스키기의 의사선배들을 생각하며, 내 눈을 덮은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자고 다짐한다.



글 |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산수는 '1 + 1 = 2'이다. 진흙 두 덩이를 합하여 한 덩이로 만들어 놓고 '1 + 1 = 1'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진흙의 무게나 부피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변은 억지가 된다. 아무도 '1 + 1 = 1'이라는 수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기본적인 수식을 넘어선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 한 위격(位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1 + 1 = 1'이라는 수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단지 수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주일과 6주일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라고 고백한다. 15-18문답에서 한 가지씩을 살펴가는데,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부터 논의한 주제이다. 먼저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간략히 살피고,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묻고 답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

니케아 공의회(325년), 칼케돈 공의회(451년)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년)

고대 교회에서 처음 다룬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분이신지, 아니면 유사한 본질을 지닌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에 열린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지니신 분이심을 확정하였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니케아 공의회(325년)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중앙)와 거기에 참여한 주교들이 니케아 신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성화



칼케돈 공의회 1500년 주년 기념 우표 (1951년 바티칸)

인용한 문구에서 보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예수님을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확정하였으나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위격 안에 연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 위격과 한 본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었고, 두 본성이 분리되거나 분할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 본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었다. 주후 451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개최된 칼케돈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신성으로는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으로는 하나님을 낳은 분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드님,
주님, 독생자는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되,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으십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비를 명료한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하지 않음을 말하고, ‘둘’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하여는 두 본성이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음을 말하였다. ‘성육신의 신비’를 해체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신비를 그대로 놓아두고서 다만 극단적인 주장만을 금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성육신의 목적,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18문에서는 각각 ‘종보자의 성격’과 ‘그분이 참인간이셔야 하는 이유’, ‘참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누가 그러한 성격의 종보자이신가’ 하는 주제를 다룬다. 마치 집을 짓듯이 하나씩 다루는데,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의 구원자이고 종보자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원론적 특성은 칼케돈 공의회와 정신을 잘 따르고 있다. 거의 1,100년의 차이를 넘어서 보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되고 의로우신 인간(16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서 짓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사람’에게서 짓값을 찾으신다.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지만, 그것을 파기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창 2:17). 따라서 천사나 동물과 같은 다른 피조물은 사람의 죄책을 대신 질 수 없다(14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7-8).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일은 하나님인 그분이 참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방편이었다.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으며(벰전 3:18), 그 입에 꾀사가 없으시며(벰전 2:22; 사 53:9),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짓값을 치르셨다(벰전 1:19). 구약의 백성들도 장차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달리 죄를 범하지 않은 자’ 곧 ‘의로운 가지’인 신 분이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을 소망하였다(렘 33:15).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후 5:21).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인정한 사실이었다(눅 23:22).

참하나님(17문)

17문의 답은 “그의 신성(神性)의 능력으로”라는 말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참하나님이심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므로 그러한 진노

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였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사람으로서는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의 의로운 진노를 받을 수 없으며(나 1:6), 또한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중보자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시다(요 10:17-18). 단지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참인간이고 동시에 참하나님이신 이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자신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둘째, 중보의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도 중보자는 참하나님이셔야 했지만, 또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참하나님이셔야 했다. 즉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의와 생명을 얻으셨다(딤후 3:16). 또한 중보자로서 얻으신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롬 4:25).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벧전 3:18)이다. 중보자께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참하나님이셔야 하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일만을 강조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주장과 구분되는 점이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입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8문)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救贖)함이 되신 분입니다.

참인간이고 의로운 분이고 참하나님이신 분을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지 않느냐는 듯이 18문은 '그러나' 하면서 묻는다. 그렇지만 '그러나'라는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

이다. 왜냐하면 마치 찾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제1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아는 상태에서 15문에서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고 묻고, 16-17문에서는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규정하였으며, 이제 18문에서 '누가 그 중보자인가?' 하고 묻는다. 차근차근 따지면서 묻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8문의 답은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18문의 질문은 '그러나'로 암울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도록 이끈다. 신앙고백으로서 요리문답 교육 방식의 모미가 한껏 드러난 예이다.²⁾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기쁘게 고백한 후, 우리의 요리문답은 고린도전서 1:30을 인용한다. 먼저 그 문맥을 보면, 고린도전서 1:18-2:16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1:30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지혜'는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말로 설명이 되고 있다.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1) F. Klooster, Our Only Comfort I, p. 176.

2) Bijl, Houvast en troost, p. 66.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긴요한 일이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긴요한 일이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죄의 노예 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원래의 상태로 살 수 있다. 의와 거룩함과 구속은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큰 선물이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전 2:8). 대제사장 가아바는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였다(요 11:48).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것처럼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로써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또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18, 24).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달리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이

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신께서 나타내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고전 2:4-5, 12).

경건의 비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들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딤후 3:16) 하고 외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훈은 큰 비밀이고, 사람으로서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경건의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은 그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알려지는 신비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04

로마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세 시대,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찌렀다. 교황은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고, 군주는 세속 권세의 대리자로서 교황의 신임을 받아야 직위를 인정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절대적 권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중세 교황의 지위는 어느새 절대권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교황이 내리는 성경 해석은 오류가 없다

는 신념이 그것이었다.

어거스틴 사제인 루터는 자연스럽게 교황을 존송하였다. 게다가 로마는 유럽 최고의 성지로서 수많은 신앙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아니었던가. 초대교회 신앙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로마 순례는 신앙인들에게 필생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서기 위해 오르셨다는 계단도 예루살렘에서 가져다 놓았고, 바울과 베드로의 유적, 카타콤베, 원형경기장 등이 있어 기독교 신앙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드디어 1510년 겨울 루터는 로마로 향한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시절, 당연히 도보였다. 어렵잡아 1,500Km나 되는 거리였다. 하지만 거리는 문제되지 않았다. 교회 역사와 교황의 도시 로마를 간다는 데 방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믿음과 열정, 기대를 가지고 당당한 로마였다. 하지만 루터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루터 연구가들은 이렇게 지목할 수 있으리라. 종교개혁자는 95개 조항을 공표하였던 비텐베르크가 아니라, 정적 로마였다고.....

루터의 로마 순례는 대실망이었다. 그는 나중에 정리하여 발표한 95개조 반박문 제88조항에서 이렇게 교황을 비판한다. “교황이 지금 하루에 한 번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면과 축복을 하루에 백 번을 한다고 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는가?” 바티칸은 기초 공사 중이었고, 사제들은 면죄부를 팔았다. 무엇보다 루터를 실망시켰던 것은 사제들의 도덕적 문란과 타락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말뿐이지 무가치하게 취급되었다. 미사는 경건하지 못했다. 심지어 미사를 짧게 진행하는 사제도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사창가에 가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루터는 후에 이렇게 썼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로마일 것이다.”

루터의 마음에 의분(義憤)이 솟아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실상을 보게 하시려고 루터를 로마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 사도의 경탄이 귓가에 울린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어....”(롬 11:33)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고등 여주캠퍼스 신입생 모집!



유·초·중·고등
기독교 고전교육기관



SICA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Trivium)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샬롯메이슨 철학을 토대로 품성을 가르칩니다.

SICA는 전 과목을 역사로 통합하여 교육합니다.

SICA는 이중 언어로 교육합니다.

SICA는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SICA는 말씀을 따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SICA 고등 과정 입학설명회

- 일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12시
-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363)

유·초·중등 과정 입학설명회

-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4시
-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363)



유·초·중등 과정

유치원-7학년 | 양재캠퍼스

고등 과정

8, 9학년 | 여주캠퍼스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

왜 일반 도서를 읽어야 할까요?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신앙인을 위한
문화매거진

???

어떻게 일반 도서를 대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읽는 것입니다.

땡스북은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읽고 싶은
신앙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사는 곳이
일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독서토론 논제,
글쓰기, 독서법 등이
연재 중입니다.

주요 내용 독서토론, 글쓰기, 독서법, 키워드로 만나는 책의 열개, 미디어 비평, 다양한 독서 활동 소개

추천 최태연(백석대 교수), 정병오(전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주련(성서유니온 출판국장)
이찬형(샘물중고등학교 교장), 이운연(re 편집장), 김정태(좋은교사, 전 편집장)

THANKS BOOK
땡스북
정기구독

1년 **36,000** 원 (택배비 포함, 연 6회 발행)
구독상담 070-8233-5178 www.tgive.org



정기구독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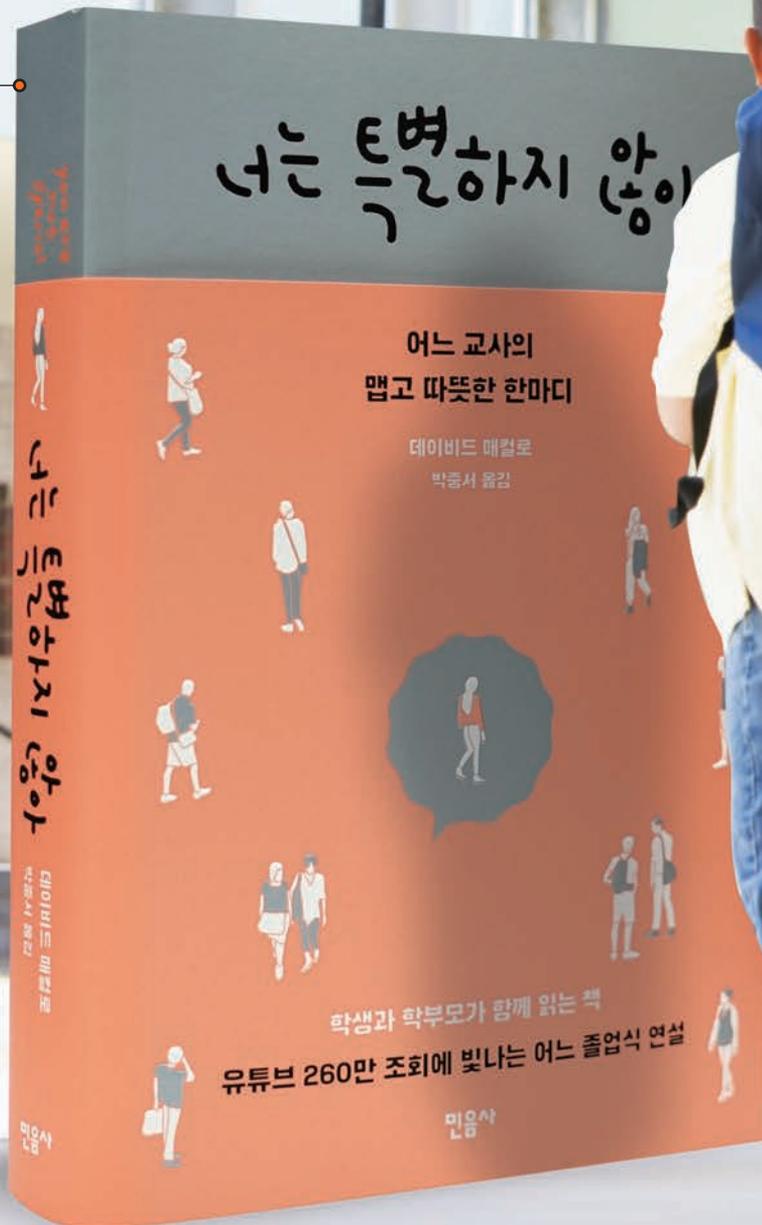
- 사)땡스기브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유일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 땡스북(ThanksBook)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발간하는 독서진흥간행물입니다.

Recommend

너는 특별하지 않아

데이비드 매컬로 지음 | 박중서 옮김 | 민음사

소위 명문대생을 많이 배출해 낸 웰즐리고등학교의 문학 교사인 데이비드 매컬로의 졸업 축사를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축사는 대입 위주의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삶의 지혜, 유머가 담겨 있어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책에서는 공부 경쟁밖에 모르는 학생들에게 건네는 맵지만 따뜻한 이야기와 학부모, 교육자에게도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불안하지?

“너 참 평범하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자타가 공인하는 범인(凡人) 일지라도 어쩐지 의문의 1패를 당한 느낌이랄까. 타인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이 없다면 낙오자가 된 기분을 피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어린이들이일수록 이런 감정에 민감하다. 광고회사는 학생들의 이런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한다. 나에게 특별함을 가져다줄 가방을, 신발을, 점퍼를, 액세서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하여 특정 브랜드는 교복이 되고, 국민 신발이 되는 역설이 펼쳐진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추구하는 제품의 가격과 형태가, 삶의 양태가 다를 뿐이다.

특별함의 유혹은 제품 구매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비범한 능력이 없거나 잔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된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모두가 특별해지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을 부추긴다. 그 결과, 야심은 죄가 사하여지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덕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과연 이 미덕은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찬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저자가 언급한 ‘다메섹에 간 것으로 유명한 바울’의 말을 떠올려보자. 그가 말했다고 알려진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은 실제로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별함도 마찬가지다. 특별함 자체만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은 적으로 가득 차고 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힐지 모른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 능력이 비범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keyworld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한 웰즐리고등학교 교사 | 졸업식 연설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아닙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참된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과 영성

카렌 머리 유스트/ 바이런 앤더슨 지음 | 이규민 옮김 | 대한기독교서회

현대 교육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꼽자면 무엇보다 '영성(교육)'이 먼저 떠오른다. 영성을 상실한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논리와 이성으로만 탐구하는 지식은 인간의 삶과 세상을 편협하게 보도록 만든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 삶을 살게 한다. 영성이 부재한 교육은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기독교학교나 교회에서조차도 실상은 참된 영성교육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성교육의 부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고민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나아가 그러한 질문조차도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은 건조하고 딱딱해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 영성 혹은 영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교육과 영성』이란 책이 집필되고, 이 책이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영성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방법과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과 같은 영성교육의 기초와 실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편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된 영성을 기르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이 책에는 교회역사 초창기의 뛰어난 영성교사였던 사막 교부와 교모들의 글들로부터 현대 영성사상가들의 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들이 인용되고 있어 독자들은 초기 역사에서 현대에 이르는 영적 거인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다만 저자들의 박식함 탓으로 워낙 많은 인물들의 명문장들이 책 속에 인용되고 있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독서할 것을 권면하고 싶다.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때가 가끔 있었다. 평소에도 종종 생각하는 바이지만 이 책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신의 존재를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이다. 책의 많은 문장들은 이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영적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며 영적 교사의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가르침이란 내적 기도의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다.”(33) 영적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 행동으로서의 형식적 경건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영적교사의 권위는 교사가 가진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바 되고 그 사랑을 구체화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방식”(37)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학과 교회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르치는 동안 종종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답은 종종 부정적이다.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런 불일치와 긴장 가운데 있는 필자에게 이 책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가르침이란 내적 기도의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영성을 온전케 하라.” 이 소리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의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평소에 갖고 있던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질문은 ‘영성회복을

돕는 영적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5세기 그리스의 주교였던 디아도코스의 글을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적 교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인 (영적) 지식과 지식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혜를 가진 자이다. 디아도코스는 지혜를 “자신의 솔선수범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211)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적 지식과 지혜는 교사 자신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사는 항상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적 지식은 기도, 깊은 고요, 온전한 초연함을 통해 오고, 지혜는 겸손한 성경묵상과 하나님의 부여주시는 은혜를 통해 온다고 한다(213). 그러므로 교사가 영적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묵상적 기도와 비판적 연구를 함께 수행해야 된다. 영적 교사는 묵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경험해야 되고, 비판적 연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성찰의 경험을 말과 글로써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묵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영적 교사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책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부는 교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다.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을 청중하는 삶에 의해 입증된다는 사실과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루터의 정의에 대해 상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막교부들의 글들을 인용하고, 키에르케고르와 프란시스 드 살레의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영적 교사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

해하고 이를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한다. 공동체적 배움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듣기, 일상에서 들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창조하기, 종교적 상상력 키우기 등과 같은 방법들을 다양한 글들을 인용하면서 제안하고 있다.

제 2부는 기독교 영성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영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성형성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전통적 교육형태와 현대적 교육을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제 3부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모델에 대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은유와 모델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찰한다. 이를 위해 존 번연의 '천로역정',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클리마커스의 '성 영원과 성 행복의 순교'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삶의 관계에 대한 시에나의 캐서린의 사상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변형적 학습이론과 영적 지식 계발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탐구한다.

제 4부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평가에 대한 것이다. 영성교육 후 신앙이 바르게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며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신앙평가의 대표적인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로올라의 양심검사법이며, 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교육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을 위해 의도되었다. 그러나 이들 뿐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에는 영성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을 활용하여 교회의 다양한 교육활동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교사의 정체성과 참된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부모들은 교회나 학교의 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가정에 있는 한, 둘의 자녀를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모들이 이 책을 정독하는 일은 자녀 교육과 영성교육에 대해 심도 깊은 배움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글 | 강영택

미시간주립대에서 교육학으로 전공하고 현재 우석대 교수이다. 저서로는 『고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외 다수가 있고, '기독교학교'와 '학교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효성에프엠에스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효성에프엠에스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6년 4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10,000	인건비	일반급여	4,494,000
	임원회비	60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5,890,000		소계	4,494,000
	기관후원금	4,4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31,000		사무실관리비	390,000
	CTC후원금	100,000		통신비	338,89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244,230
	기타후원금	0		소모품비	78,750
				비품	353,590
				식비	480,940
		복리후생비		276,010	
		퇴직연금		309,250	
		컴퓨터		111,530	
		교육비		165,800	
		회의비		52,600	
		회계용역비		1,155,000	
		기타	263,745		
		소계	4,770,335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129,175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129,175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발송비	768,460	
	소계	13,681,000	소계	3,268,460	
기타수입	법인세환급금	121,980	기타	세금	18,040
	이자수입	0		기타	110,000
	소계	121,980		소계	128,04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3,850,000
	학술지심사비	560,000		학술지발송비	889,240
	학술지게재료	0		학술지심사료	710,000
	자료집판매	0		학회기타	200,000
	소계	660,000		소계	5,649,240
당월 수입액	14,462,980	당월 지출액	19,439,250		
전월 이월액	55,574,401	차월 이월액	50,598,131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6년 4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68,000
				기타급여	0
				소계	1,968,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056,000	
		인쇄비		2,513,060	
		기타제작비		1,700,000	
	소계	550,000	소계	5,729,06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142,900
				퇴직연금	146,220
				회계용역비	550,000
				도서구입비	11,700
				회의비	24,000
				식비	19,500
				소계	894,320
			기타	세금	128,130
				기타	112,000
		소계		2,500,000	소계
당월 수입액	3,050,000	당월 지출액	8,831,510		
전월 이월액	14,512,959	차월 이월액	8,731,449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No. (2016년 4월 30일 마감)
Date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태영,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원근, 생명의강, 성관수, 영음사, 옥광천, 유성욱, 윤혜경, 이동렬,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영래, 조은주,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태,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 룯, 김미정, 김병민, 김성은, 김성찬, 김성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재우, 김태영,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재국, 박상교, 박승룡, 박천규, 박현빈, 배도환, 범경철, 손새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현,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은,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민수, 이종혁, 이항숙, 이호진, 임소연,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종국,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동현, 한배선, 송승기 **6천** 구재형 **7천** 송민혁, 안웅주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동현, 김성욱, 김재우, 방성기, 염기윤, 이경우, 이남철, 이세호, 이은순, 이지은, 전영식, 정찬주, 진영규 **1만**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승모, 강연정, 강원석,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웅재, 고재호, 짝이, 광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규국, 김근배, 김기현, 김대웅, 김대훈,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래, 김봉수,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세원, 김세원, 김세중, 김수홍,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종국,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민, 김지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홍, 김태우, 김태호, 김판익, 김 혁, 김현정, 김형길, 김형철, 김혜정, 김홍선, 김홍제,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수, 남서희, 노아름, 라명환, 류은정, 유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문재환, 문진성, 박강국,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복배,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근,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형준,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배효진, 백경은, 백현준, 변희지, 부천명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하은,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호영, 심명성,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영환, 안용준, 양성근, 양자호,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오경호, 오성호, 오지순, 우종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성환, 유승민, 유영준, 유은하, 유익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윤경수, 윤명식, 윤미선, 윤상현, 윤숙자, 윤찬희, 이 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진, 이계실, 이권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규, 이길형,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열,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근,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 선, 이선복, 이선혜, 이성미, 이성수, 이성일, 이수연, 이승연,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익, 이요한, 이용훈, 이원배,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혜,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철걸, 이혜리, 이행로, 이형진,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주, 임상필,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준섭, 임준택, 장경근, 장동진, 장성호, 장솔기, 장승재, 장승화, 장용경, 장용중,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대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영수, 전장원, 전중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재현, 정정수,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태,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성호, 조승희, 조용배, 조용현,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하람, 조현우,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상열,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수, 최은영, 최중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태명숙, 허성민, 허재희, 허진호, 허한진, 한미영, 한신영, 한인근,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함부영, 허기영, 허 연, 허찬영, 허현, 현승근, 홍구화,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종민,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성신, 황세환, 황익서, 황인경, 황대연, 황해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정상섭, 최동원 **1만7천5백** 이승호 **2만** 강대훈, 강광원, 김영만, 김용식, 김민숙, 김정호, 노용환, 박만준, 박혜경, 배성민, 석지원, 손한나,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민아, 조주영, 조창근,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손진영, 송태현, 오익석, 오한나, 우병훈, 이근호, 이수형, 이에진, 이은실, 이재호, 이진희, 임희옥, 장수영, 정요한, 최용준, 추태호, 황정진 **4만** 김세광, 박지희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김의원, 박문사, 서진희, 심종석,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원일, 한윤식, 현은자 **7만** 최태연 **8만** 권정아 **10만** 박상은, 손보호, 손영복,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윤완철, 전광식 **12만** 김지원, 현창기, 홍순모, 황혜정 **30만** 김승욱

계 8,231,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예성교회, 제자로교회, 주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횡동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심자가교회

계 5,4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세미나 | 사선에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생명의 가치부터 생명연장의 꿈, 현 시대 기술발전으로 장기 3D프린팅의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 장기 이식 및 성체줄기 세포, 안락사나 자살관광 등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윤리 문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선착순 40명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 **주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 **일시** 16.6.17(금) 저녁 7시
- **장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4층 회의실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5분거리)
- **강사**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본회 이사)
- **주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주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45-7237 (담당 : 홍정석 간사),
카카오톡 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모임 | 월드뷰리더(Reader)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4월호 표지인물이었던 "존 낙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신 권태경 교수님의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자, 존 낙스"를 통해 삶 속에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준비도 없

어도 됩니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 등으로 신청하시고 그냥 오세요. 사당역 와우카페, 6월 2일입니다. 매월 신청받습니다.

- **일시** 16. 6. 2(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토크** 권태경(월드뷰 4월호 커버스토리, 총신대 교수, <존 낙스>)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02-754-8004 (담당 : 김고운 간사)

모임 |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입학설명회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양승훈 원장, 전성민 학장)의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자 하시거나 안식년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일시** 16.7.15(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 **문의** 02-745-7237 (담당 : 홍정석 간사)

6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2	월드뷰리더 모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세미나] 사선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18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19	
20	간사 리트릿 (양양 라브리)
21	간사 리트릿 (양양 라브리)
22	간사 리트릿 (양양 라브리)
23	
24	
25	
26	
27	월드뷰 7월호 발행
28	
29	
30	신앙과 학문 21권 2호 발행/ 교수선교회 홍보(~7/2)

임원소식 | 조성돈 대표님! 축하합니다!

지난 5월,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킵오프 행사에서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본지 편집위원이자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님이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임원소식 | 전성민 학장님! 축하합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대학교(VIEW)의 전성민 교수님께서 VIEW의 학장으로 임명받아 부원장이자 학사 관련 행정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학회소식 | 2016년 춘계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전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춘계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조강연 및 발표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학회를 후원하여 주시고 섬겨주신 전주대학교, 새로남교회와 전주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사무국소식 | 간사 리트릿

하계 사무국 간사 리트릿이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강원도 양양 라브리선교회에서 하반기사역 회의 겸하여 실시합니다.

발렌티어 모집 | 일러스트레이터

유머 코너의 일러스트를 담당하던 김규상 일러스트레이터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일러스트란이 공석입니다. 도움주실 동역자를모십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황이 운전기사

교황의 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날씨도 좋고 차도 많지 않아서 교황은 운전을 좀 해 보고 싶었다. 기사를 설득하여 운전대를 잡았는데 젊었을 때처럼 달리다가 과속을 하고 말았다. 차를 세운 순경이 운전석에 앉은 교황을 알아보고는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경: “과속하는 차를 잡았는데 딱지를 떼기에는 너무 높은 분이 댔는데요!”

서장: “누구야? 국회의원이냐?”

순경: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예요.”

서장: “그럼 장관이야?”

순경: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서장: “뭐? 그럼 대통령 각하야?”

순경: “그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서장: “대통령보다 높아? 도대체 어떤 분이냐?”

순경: “교황님을 기사로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으신 것 같습니다.”

SAMSUNG

기분 따라 마음껏,
핑크골드로 마음껏.

♥ 7



Galaxy S7 edge | S7

2 · 0 · 1 · 6 · 생 · 명 · 윤 · 리 · 강 · 좌

사선 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일시 **6월 17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회의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3 동부다동빌딩 4층



강사 박상은 원장

샘병원 대표원장
대통령소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 생명, 그 존귀함
-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 어떻게 죽을 것인가?
- 우리는 죽음을 연습할 수 있을까?

본 강연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제작하는 세계관 동영상 "월드뷰" 촬영과 함께 진행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info@worldview.or.kr로 이름, 소속, 연락처, 신청사유를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45-7237